

특별리포트

정읍시, 복면 지적재조사 '순조'

정읍시가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중이 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복면 신촌지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 열람을 위한 현장사무실을 운영했다.

현장사무실에서는 토지의 이용현황대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한 측량성과 열람과 함께 임시경계점표지 확인 및 지적확정 예정토지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사무실 운영을 통해 측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과 협조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복면 신촌지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시는 지난해 국비 8천500만원을 확보해 524필지 856천㎡를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 일필지경계점표지 설치, 토지소유자 경계조정 등을 완료했다. 앞으로는 경계결정과 조정금 산정·지급,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축적 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교월동, 코스모스 꽃길 조성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박상문)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벌꿀채 일원에서 펼쳐질 김제지평선축제에 맞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추억거리를 선사해 줄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기하고 있다.

김제지평선축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잡은 코스모스 400리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축제장 진입로 구간을 포함한 약 16km 구간과 포토존을 조성하고 있는 교월동에서는 보다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5월초 꽃길 조성지에 대한 제조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코스모스 꽃길 조성 준비에 들어간 교월동에서는 코스모스 개화기간이 약 90여일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6월말까지 포크레인 작업 등 코스모스 꽃묘 식재를 위한 사전정지작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7월초 교월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영이) 등 주민 50여명과 함께 꽃묘 식재 작업을 마무리 하고 지평선축제기간에 맞춰 코스모스가 만개할 수 있도록 잡초제거, 보식작업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철보물놀이장은 매주 월요일 휴장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 개장

내달 2주간 주말개장 거쳐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운영

여는 해 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한 방에 식혀줄 물놀이장이 개장된다.

시는 여름철 물놀이 명소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하 철보물놀이장)이 내달 두 주간의 주말개장(7월 2일과 3일, 9일과 10일)을 거쳐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본격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보물놀이장은 매주 월요일 휴장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철보물놀이장은 매년 여름철이면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전주와 광주 등지에서 어린이를 대동한 가족단

위 물놀이객이 주로 찾고 있는 정읍의 여름철 대표명소로, 지난해에도 약 4만여명이 다녀갔다.

물놀이장에는 바다슬라이드와 워터드롭, 워터터널, 워터바스켓, 워터스프레이, 워터사위, 요크슬라이드 등이 설치돼 있어 물놀이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특히 올 초부터 물놀이장 도색과 함께 탐승계단과 그늘막 설치 등 시설을 정비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기간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여과 및 소독시설을 가동함은 물론 매일 시설을 청소하고 물을 교체하는 등 청결유지에도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용요금은 정읍시민의 경우 어린이 2천원, 청소년 3천원, 성인 4천 원이고, 정읍시의 거주자의 경우는 어린이 4천원, 청소년 5천원, 성인 6천원이며, 20명 이상 단체 입장시는 거주지 관계없이 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정읍시 거주 여부는 입장권 구입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보여주면 된다.

또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 및 보호자 1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고령자와 그린카드 소지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어촌공 부안지사 장마철 농수로 수초 방치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았으나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가 손을 놓고 있어 관내 용·배수로에 밀집 자생하는 갈대과 수초가 제거되지 않아 용·배수로 물 흐름을 막아 인근 농경지가 침수가 우려 농민 피해가 예상되어 대책미련이 시급하다.

특히 용·배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는 농민의 애로사항은 뒷전인 채 편의주의 행정을 펼치며 예산타령만 늘어 놓고 수초 제거작업을 미루는 등 용·배수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에 따르면 올해 총 3천6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관내 농수로의 수초 및 정비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부안지사 관계자는 장마철인 데도 관내 3개 출장소에서 준비 중에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주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지역 부안군 계획면 공안리와 대별리 일대 용·배수로가 갈대와 수초 등으로 뒤 덮인 채 방치되어 물흐름을 가로막고 있어 집중 호우

시 인근 50여ha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고 있다.

농민 김모씨(67, 부안군 계화면 대별리)에 따르면 "매년 수초가 제거되지 않아 장마철에 눈에 침수되어 논농사에 피해를 보았다"며 관계당국에 수차례 수초제거 작업을 장마 이전 작업과 농수로 확장을 요구했지만 제거 작업이 지연 집중 호우 시 농경지는 물론 인근 50여 세대의 주택까지 침수가 우려 방점을 설치하며 걱정과 불안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농식품 굿 포장디자인 대회 입상

김제시는 "이야기가 있는 목표 고객을 이해하는"을 주제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한 2016 전라북도 농식품 굿 포장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입상분야는 비가공분야 최우수상에 농업회사법인(유)두레마을(대표 송화진) 김제 맛있는 쌀과 아이디어분야 우수상에 금모래마당(대표 조성천) 마짜조청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비가공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두레마을(대표 송화진) 김제 맛있는 쌀은 원색으로 화려하게 제작된 현재의 쌀 포장지를 탈피하여 '쌀'이 가지고 있는 순백의 느낌을 살리고자 심플하게 디자인하였다. 2016년 맛있는 쌀 프로젝트에 참여

한 농부 10명의 이름을 스타커로 제작 해 농부의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되는 창의성을 발휘하였고 이로인해 '쌀' 포장지의 대량주문에 따른 제작비 상승 억제 효과를 얻었다. 기존의 4kg단위의 차별화 하여 1년 365일 쌀밥을 먹는 의미로 3.65kg단위로 포장하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이디어 분야 우수상을 받은 금모래마당(대표 조성천) 마짜조청은 김제 지평선 쌀을 원료로 어렸을 적 추억을 상기하며 생산자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제품포장을 하는 열정이 담긴 제품이다. 떡먹고 짝어떡는 조청의 불협화음을 마시고 짜먹는 조청으로 변신, 휴대성까지 겸비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협 - 제주 김만덕 기념관 업무제휴 협약

김제농협(조합장 고성곤)은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김만덕 기념관(관장 김상훈)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협약은 사랑의 쌀 나눔사업, 사랑의 나눔쌀 기부, 상호 발전을 위한 사업 등으로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한 내용과 더불어 김제쌀의 이미지 개선과 판매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본 협약에 따라 3일 김만덕 기념관 개관 1주년 행사(나눔쌀)에 김제농협 쌀 11톤을 공급하였고 연간 70여톤을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사

업소(장장 김진성)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지난 3월 글로벌종합식품그룹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와의 계약(제주국제공항, 제주과학단지, 제주마사회 등에 김제농협쌀을 공급)에 이은 쾌거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고성곤 조합장은 "거사이자 의인인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의 뜻을 기리는 사업에 김제농협쌀이 사용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좋은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에 더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농기, 장마철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장마철 철저한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으며, 특히 라니냐가 발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술센터는 "농작물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장마전선이 상승함에 따라 비가 자주 내리면 거름기가 많은 논에서의 도열병 발생이 우려되고, 장마가 지속될 경우 도열병에 약한 품종과 일색이 짙은 포장 등에서 도열병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생초기에 철저하게 방제해야 하며 잎집무늬마름병 방병율이 20% 정도인 논에서는 적극적인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수 농가에서는 강한 비바람으

로 인한 가지 부러짐이나 낙과 예방을 위해 웃거름 가지 위주로 전정 작업을 하여 생육 환경을 좋게 하고, 늘어진 가지는 반침대로 받쳐 주거나 끈 등으로 받치며 매달아 바람에 의해 가지가 흔들리거나 낙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마 후 흑성병, 갈색무늬병, 검무늬썩음병, 세균성구멍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오기 전이나 비 온 후에는 적용 약제를 살포해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

또한 고추는 장마기간에 연약해져 탄저병, 역병 등에 걸리기 쉬우므로 비가 오기 전에 예방 위주로 적용약제를 고추 전체에 골고루 묻도록 뿌려 주고, 많은 비가 온 뒤에도 방제를 철저히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현재 담배나방과 진딧물, 총재벌레 등 해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방제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뽕주 Premium Ohdi Wine'. There are also various gift set options listed with prices.